

# 김승수 전주시장, 메타버스로 청년과 소통

### 전북대·전주기전대·예수대학교 학생 30여 명과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청년 공감 간담회 개최

김승수 전주시장이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청년취업 정책에서부터 한옥마을 활성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놓고 지역 대학생들과 소통을 했다.

전주시는 13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를 활용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대·전주기전대·예수대학교 학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메타버스 청년 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장님! 전주는 어떤 곳인가요?'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김지광, 전주기전대학교 정승진, 예수대학교 노하연 등 총학생회장들의 정책 건의를 비롯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질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청년 취업 정책을 비롯한 청년대책은 물론이고 △2050 탄소중립 △한옥마을 상업화 및 쓰레기 문제 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청년취업 정책에서부터 한옥마을 활성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놓고 지역 대학생들과 소통을 했다.

결방안 △덕진공원 활성화 △동물원 교통체증 해소 방안 △놀이터 및 도서관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추후 전북대·전주교육대·전주기전대학교 학생 30여 명과 2차 간담회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를 통해 나온 제안의 정책 반영 여부를 놓고

각 부서 관계자와 협의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승수 시장은 지난 5월 서서학동과 효자동에 위치한 사회주택 '창공'과 '소우주'를 방문해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한 바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메타버스는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기술이라 청년들과의 소통에 적극 활용했다"면서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을 확대해 전주가 청년희망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야호야호동정책참여단과 함께 메타버스 공간에 야호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직원 친절교육을 여는 등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 '빛났다'

### 전주시,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상 수상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운영 등 전주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13일 일산 컨텍스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중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K-Solar League)에서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와 한국에너지공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와 정책을 겨루는 태양에너지 발전 경쟁리그다.

이 대회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협동조합과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태양광 발전·보급 사례가 발굴된 가운데 시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설립·운영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에너지 전환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에너지 전환전국네트워크크상을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

이날 우수사례 발표에 나선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 30대 과제를 추진하는 '에너지디자인 3040' 정책과 함께 전주시민햇빛발전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시설인 효자배수지와 송천동 어울림체육센터, 천마배수지 등에 대한 보급 사례를 전국 지자체들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원탁회의와 에너지 전환 시민포럼 운영 사례, 금융권·의료계·카페·공동체들이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소개하면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운동을 유도하는 등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경찰 직원비위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비리 만들어”

### 박완주 의원, 끊임없는 비리에도 솜방망이 징계 강력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전라북도경찰청 국경감사에서 전북 경찰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와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지난해 10월 전북의 전·현직 경찰이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역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밝혀져 올해 7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2020년부터 법원공무원 및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마스크 사기행각을 벌인 전북완산서 소속 경찰이 기소되면서 검찰로 송치된 것

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전북청 소속 의무경찰 4명이 회식비 미편을 위해 생활관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장터에 판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올해 초 전북 경찰은 금품수수 사건 발생과 관련해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발령 및 특별감찰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확고한 개혁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후 전북 경찰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의견이다. 박완주 의원이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해당 경찰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일선 지구대로 전보 발령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경찰은 수사 개시 이후에야 직위해제 됐으며,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않고 있다.

한편, 중고거래 장터에 생활관 물품을 흥취 무단으로 판매한 의무경찰에게는 휴가정지 5일이라는 가벼운 조치만 취해진 상황이다. 전북경찰이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발령'과 함께 사건문의 관련 사전 사후 신고제

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취임한 이형세 전북경찰청장도 비리경찰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여전히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31건의 징계가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전북경찰의 직원비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경정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접수

전주시 효자3·4·5동 등 서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울 복합복지관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전주시는 15일 서부신시가지 전일고등학교 인근 사유지에 서부권 복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는 서부권 복합복지관을 도시 확장에 따른 복지인프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효자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다는 구상이다. 이번 설계공모에서 시는 노인, 다문화 가정, 아동 등 운영주체가 다른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되 디자인 및 효율성이 고려된 공간 구성안과 조경 및 휴게공간 구성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시는 참가신청을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 설계 작품을 접수한 뒤 건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꾸려 12월 21

일 본격적인 작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작품 심사는 건축사들의 공모안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모든 과정이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후 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당선작을 게시하고, 최종 당선자에 설계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시는 10개월 간의 설계기간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5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국비 27억 원을 포함한 총 227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950㎡ 규모로 구축된다. 이곳에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갖춰진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우주로1216' 3년 연속 도서관축제 참여 주목

전국 최초 트윈세대(12~16세) 전용 공간으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에 조성된 '우주로 1216'이 3년 연속 도서관 최대 축제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전주시는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포럼에 참여해 '도서관 속 트윈세대를 위한 공간, space T'를 주제로 '우주로 1216'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2019년에는 '전주시립도서관 트윈세대 공간 짓기'라는 주제로 트윈세대 조성에 관한 사례를, 지난해에는 '청소년과 함께 만든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 트윈세대 공간 우주로1216'을 주제로 운영 사례를 발표

한 바 있다.

(사)한국도서관협회 주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는 매년 가을 전국 모든 회원 도서관과 도서관인·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도서관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이 교류되고 있다.

포럼의 연사로 나선 유진선 전주시 책의도시운영과 주무관은 운영 2년차를 맞이한 '우주로 1216'의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우주로 1216'에서 목격할 수 있는 트윈세대들의 모습과 변화, 공간이 도서관 인력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